

다시 쓰는 ‘신촌리 금동관’ 이야기…108년 만의 재조명

내달 27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

발굴 당시 일본계 유물로 오해받았던 ‘신촌리 금동관’이 첨단 과학기술과 축적된 연구를 통해 백제와 마한문화권의 독자적 유산으로 새롭게 조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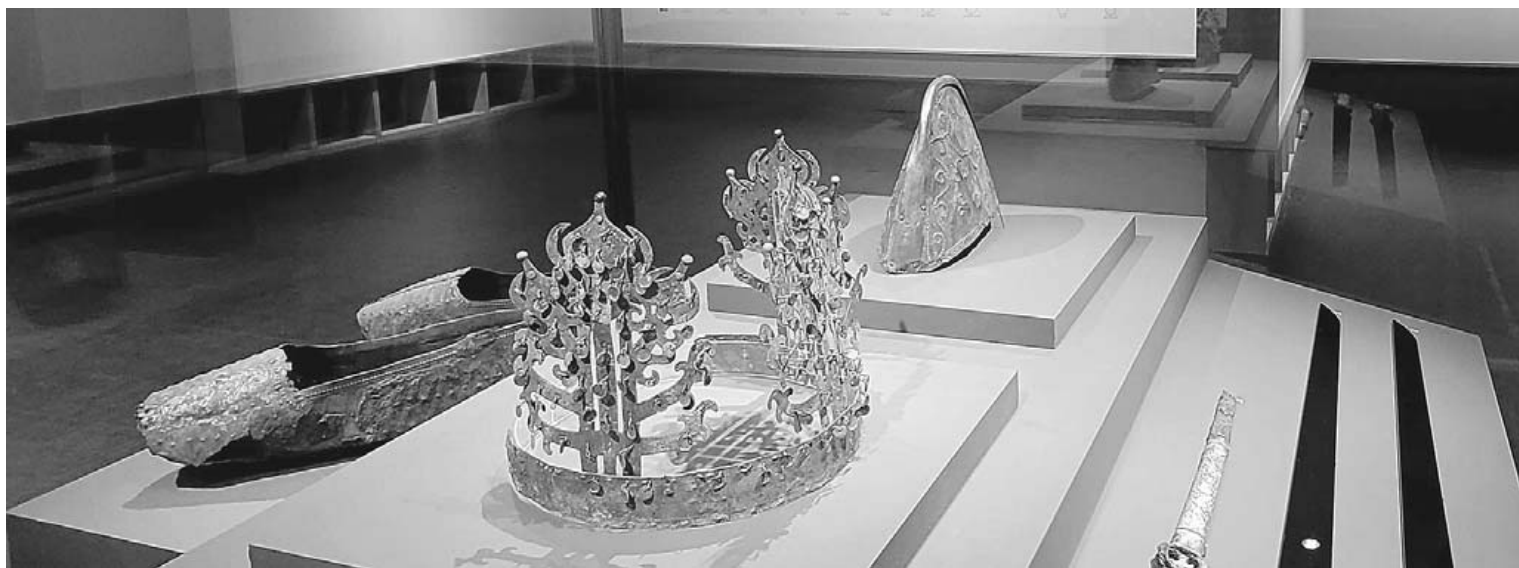
역사적 가치, 향후 연구 담아 총 4부 구성
3D 스캔 등 기술·연구로 유물 실체 규명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7월27일까지 기획전 별전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보 제265호 ‘신촌리 금동관’의 역사적 가치와 변화된 해석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출토된 금동관이자 1997년 국보로 지정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역사적 가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조망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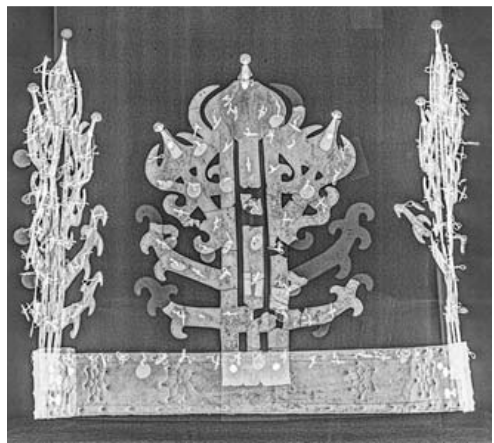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금동관에 대한 과학적 조사다. 나주박물관은 발굴 108년 만에 금동관 전면의 X-ray 촬영에 성공했으며, 정밀 3D 스캔을 통해 금동관의 구성 요소들을 고화질로 구현해 공개했다.

전시실 중앙에는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함께 금동신발, 장식대도가 함께 전시된다. 특히 금동관은 대관과 모관을 분리한 형태로 구성해 세부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동관에 담긴 다양한 정보는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제공된다.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전시 전경(위)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대관 X-ray 사진.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금동관 발굴 이후 108년간의 연구 과정을 다룬다. 1917년 발굴 당시 일본 연구자들은

이를 ‘왜인’의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조사사업과 맞닿아 있다. 해방 이후 관련 자료의 축적과 학계 연구를 통해 금동관은 마한과 백제의 문화권 안에서 재해석됐다. 특히 대관은 기존 마한·백제 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자적 양식을 지닌다.

2부는 신촌리 금동관과 삼국시대 주요 금동관의 비교를 통해 지역별 출토 관의 특징을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각 관의 출토 위치와 형식, 사용 맥락 등을 그래픽 자료로 시각화했다.

3부는 신촌리 금동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11개 유적의 특징을 비교하며, 관련 껌문거리와 영암 내동리 출토 금동관편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금동관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다.

4부는 최신 과학적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X-ray, 현미경 촬영을 통해 금동관의 내외부 구조와 유리구슬 안쪽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금동관의 수리 흔적 또한 영상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실 한쪽에는 ‘시간을 넘어 마추한 영원한 빛’이라는 제목의 감상공간이 마련돼, 신촌리 금동관을 3분 내외의 영상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김상대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마한문화권의 대표 유산인 신촌리 금동관의 실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5가지 매력·시간 담은 아시아 향 즐겨보세요~”

ACC재단, 개관 10주년 차 세트 출시

“아시아 5개국의 맛과 향이 담긴 차 세트를 즐겨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커피, 진정성’과 함께 아시아 차 세트를 개발해 선보인다.

전당과 진정성은 각각 2015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일상의 쉼으로 잇는 길을 걸어왔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상품을 함께 개발했다.

두 기관은 아시아 5개국의 차 수급에서부터 가공, 상품화 과정 전반을 함께하며 차가 지닌 고유 매력에 더해 각 기관의 특성과 브랜드가 지향하는 태도를 이번 상품에 담았다.

아시아의 차 세트는 5개국을 대표하는 차 티백 2개씩 총 10개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세차 녹차를 비롯해 스리랑카의 실론 홍차, 인도의 아삼 홍차, 일본의 가부제차, 중국의 보이차가 포함됐다.

특히 각국의 원료에 특화된 제다법을 적용해 다섯 가지 차의 개성과 매력을 살렸다. 뜨겁게 우려내거나 시원한 물이나 음료에 희석하는 등 기호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티백을 사용해 상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한편 아시아 차 세트는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과 들락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기억을 만지는 봄’ 이연숙 작가와 함께 예술 체험

12일 광주여성가족재단 전시 연계행사

아티스트 토크·손캐스팅 체험 등 마련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오는 12일 5·18 기획전 ‘기억을 만지는 봄’ 연계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에 참여한 이연숙 작가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시민들이 직접 석고를 활용해 자신의 손을 캐스팅하는 체험도 함께 마련된다. 참여자들은 손의 형태를 만들며 삶과 기억이 되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치유적 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행사는 ▲전시 관람 ▲아티스트 토크 ▲손캐스팅 체험 ▲소감나눔 순서로 진행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이연숙 작가 ‘기억을 만지는 봄’ 전시 전경

어머니들의 손을 섬세하게 재현하며, 시대적 기억과 정서를 시각화한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참여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전화(062-670-0534)를 통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자 양성과정’ 모집

오는 15일까지 접수

(재)광주비엔날레가 2025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시기획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9월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광주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은 광주비엔날레가 축적한 미학적 담론과 전시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 전반을 탐구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예술총감독 오쿠이 엔위저가 기획한 한·미·영 5개 대학 연계 프로그램 ‘글로벌 인스티튜트’를 바탕으로, 2009년 ‘국제큐레이터코스’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8년까지 운영되다 지난해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으로 재개된 뒤, 올해부터는 공식 명칭을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으로 변경해 10회 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총 56개국에서 177명이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5명이 최종 선발됐다.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교육은 ‘국가성과 큐레토리얼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가와 민족, 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동시대 미술의 큐레이토리얼 실천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주권과 공동체, 거버넌스 체계와 문화에 대한 재고를 미술 현장과 이론을 통해 고찰할 예정이다.

지도교수로는 2025 하와이트리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이자 202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최빛나 큐레이터가 참여한 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지원서,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